

TV 1일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영상앨범 산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1~2부	⑥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벤쿠버 2010 아이스 하키 결승 <미국·캐나다>
50 인간극장	00 KBS 8 아침 뉴스팀	⑦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분홍 립스틱>	45 벤쿠버 2010 특집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3·1절 기획 아침미당	00 루포 이들운 귀촌 20 이침드라마 <다즐거워>	⑧ 30 생방송 오늘아침	40 아침 연속극 <당돌한 여자>
30 KBS 뉴스	50 여유만만	⑨ 30 기분좋은 날	20 벤쿠버 2010 영광의 순간들
00 3·1절 특집다큐 초월의 미상 진관사 태극기 50 TV통행 행복한 세상	50 여유만만	⑩ 45 MBC 뉴스	45 벤쿠버 2010 SBS 뉴스 55 종계방송 3·1절 기념식
00 종계방송 제91주년 3·1절 기념식 50 느느나무	00 10주년 특집 개그콘서트	⑪ 00 종계방송 3·1절 기념식 50 MBC 뉴스	45 벤쿠버 2010 폐회식
00 KBS 뉴스12 10 수요기획 겨울 차간호 일음호수와 어부 55 바른말 고운말	40 공사창립특집 시청자와 함께하는 1박 2일 1~3부	⑫ 00 잉코로 특별기획 <목숨 걸고 편식하다>	
00 KBS 걸작선 <솔악국집 아들들>(재)	00 세·비·퀴 스페셜	⑬ 05 세·비·퀴 스페셜	
00 KBS 스포츠 비디고 <현대캐피탈·삼성화재>	30 무한도전 스페셜 <F1>	⑭ 00 강심장	
10 사랑의 가족 35 TV유치원 파니파니	00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	⑮ 1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KBS 뉴스5 15 둘들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30 VJ 특공대	⑯ 00 일요일 일요일밤에 <단비 커뮤니티>	00 벤쿠버 2010 SBS 뉴스 20 테마스페셜
00 6·1 내일한국 55 시청자클럽 우리시는 세상	10 리빙쇼 당신의 여섯시	⑰ 30 MBC 뉴스 50 TV 전국기행 <2월의 제주, 봄을 만나다>	15 특집다큐 국가대표 스키점프 하늘을 나는 꿈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특별기획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도전사	10 무한지대 큐	⑱ 45 일일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	15 일일드라마 <아내가 돌아왔다>
25 일월연속극 <비렁풀에 좋은 날>	00 KBS 뉴스타임 20 KBS 8 뉴스팀 - 광주전남 35 스포츠 티임 50 공사창립 특집 시청자와 함께 드라마의 중심 KBS	⑲ 15 일일연속극 <살맛 납니다>	00 벤쿠버 2010 SBS 8 뉴스 25 KBS 8 뉴스 50 월화드라마 <별을 따다줘>
00 KBS 뉴스9	55 월화미니시리즈 <부지의 탄생>	⑳ 00 MBC 뉴스데스크 50 MBC 스포츠 뉴스 55 월화드라마 <파스티>	55 SBS 대기획 <제증원>
00 공사창립특집 시청자와 함께하는 가요무대	15 3·1절 특선영화 <모던 보이>	㉑ 05 문화콘서트 단장	05 긴급출동! SOS 24
30 KBS 뉴스리인	①:25 클래식 오디세이	㉒ 1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전국 아이스크리밍 대회	15 벤쿠버 2010 올림픽 투나잇 30 벤쿠버 2010 나이트 라인 50 KBC 특집 희망보고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 서다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4:10 EBS 수능특강선택-고3 <한국근현대사>	08:00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국어(상)>(재)
05:00 겨울방학 특강 <비문학>	14:30 <과학>(재)
06:00 EBS 포스 <고전문학>	15:20 겨울방학특강 <문화>(재)
07:00 <수학 I>	16:10 <사회>(재)
07:50 EBS 기본과 특별한 <국어(상)>	09:40 <수학 1-1>
08:40 <과학>	17: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 <한국근현대사>(재)
09:30 필승전략 <언어영역>	18:00 EBS 포스 <고전문학>(재)
10:00 TV 갤러리	20:00 EBS 수능특강 선택-고3 <한국근현대사>(재)
10:30 TV 입학사정관	21:00 <일본어>
11:30 한일에 꽂혀 <언어영역>	22:00 깃아민든 사회탐구
12:00 고 예비과정 <국어>	22:40 EBS 뉴스
12:50 <수학>	23:00 수능평가-고3예비과정 <언어영역>(재)
13:40 EBS 기본과 특별한	23:00 Yo! Yo! PLAYTIME 2

EBS플러스1

EBS플러스2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요우 니흔고

니하오 쟁구워

한자 이야기

How much do I owe you?

얼마죠?

A : How much do I owe you?

B : \$12.75.

A : Here's \$15. The rest is for you.

B : Thank you.

A : 얼마죠?

B : 12불 75센트입니다.

A :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잔돈은 가지세요.

B : 감사합니다.

* (택시) 미터기에 나와 있는데요, 10불일 겁니다

The meter says that will be \$10.

* 나머지 돈은 가지세요

= Keep the change.

癖毛(くせげ)ということです

곱슬머리라구요

不象話

이치에 맞지 않다

A : 金さん、今日(きょう)はなんか違(ちが)いますね。ハマ

かけたんですか。

B : いいえ、私(わたし)は天然(てんねん)ハマなんですね。

A : なんですか？ その天然(てんねん)ハマっていうのは。

B : 痕毛(くせげ)ということです。

A : 김씨, 오늘 어딘가 다른걸요? 과마했나요?

B : 아뇨, 저는 천연파마예요.

A : 뭐예요? 그 천연파마라는게?

B : 곱슬머리라구요.

A : パマかける : 과마하다

癖毛(くせげ) : 곱슬머리

A : 你为什么这么不对?

B : 我们 中国 人 有 一个 俗语 叫 不 象 话。

B : 今 世 界 不 象 话。

A : 你 为 什 么 这 么 不 对 ?

B : 用 你 的 方 法 行 事 不 是 很 不 象 话 吗 ?

A : 你 为 什 么 这 么 不 对 ?

B : 你 为 什 么 这 么 不 对 ?

A : 你 为 什 么 这 么 不 对 ?

B : 你 为 什 么 这 么 不 对 ?

A : 你 为 什 么 这 么 不 对 ?

B : 你 为 什 么 这 么 不 对 ?

B : 你 为 什 么 这 么 不 对 ?

B : 你 为 什 么 这 么 不 对 ?

자성제인(子誠齋人)은 견문이 아주 좁아 하나밖에 모르고 고

루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맹자(孟子)의 제자 중에 공손주(公孫丑)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제(齊)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제나라의 명제상이었던 관

중(管仲), 안자(晏子)만이 장한 줄 알고 말끝마다 그들을 들먹

였다. 이에 식상한 맹자는 “자네는 실로 제나라 사람이라.”라

고 말했다.

[출전]『맹자(孟子)』

※ 급수 : 한자능력검정 7급, 준4급, 준3급, 8급

SBS 동계올림픽 단독중계 ‘명암’

명 중복편성 피하고 채널 선택권 보장

암 중계 다양성 결핍·종목 선택권 박탈

최고 시청률은 49.8%까지 치솟았

다. 그러나 언더리 해설 논란과 인기

종목 위주의 편성에 대한 불만이 이어

졌다.

국내에서 SBS TV가 단독 중계한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이 3월1일(현

지시간) 폐막한다. 지금까지 올림픽,

월드컵의 대형 국제경기를 국내에

서 한 방송사가 독점 중계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다. SBS는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천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

러가 많은 7천250만 달러에 올림픽 독

점 중계권을 사들였다.

SBS의 단독 중계로 이번 동계올림

픽 기간 국내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

은 보장됐다. 올림픽을 보기 싫은 시

청자는 다른 채널을 선택해 됐다.

우리 선수단이 잇따라 좋은 성적을

내면서 중계 방송의 시청률은 날개를

달았다. 캐나다와의 시차로 경기가 새

벽과 오전 시간에 열렸지만 시청률은

평일에도 20~30%까지 올랐고, 김연

아가 출전한 오후 1시에 경기의 시청

률은 40%를 훌쩍 넘어섰으며 분단 최

고 시청률은 49.8%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3사가 나란히 중계를 했다면

더 블업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다. KBS의 한 관계자는 “SBS 단독중

계로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데 국가 기

간방송사인 KBS 등 타사도 함께 중계

했다면 더 높은 시청률이 나왔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복편성을 피하자 이번에

는 다양성 결핍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

다 캐스터와 해설자에 대한 선택권이

박탈당했다는 지적과 함께 SBS가 중

계하는 경기만을 봐야한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특히 스피드 스케이팅은 초반부터

해설을 맡은 제갈성렬의 ‘샤우팅 해설’

논란이 일었지만, 시청자들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싫어

도 꼼짝없이 그의 해설을 들어야했다.

그런 와중에 제갈성렬은 이승훈이

금메달을 딴 스피드 스케이팅 1만m

경기 중계방송에서는 급기야 해설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영터리 해설과 종교적인 발언까지 해 결국 하차하고 말았다.

또한 SBS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 편성을 한다고 했지만 시청자들 눈에는 인기 종목 위주의 편성이 머물렀으며,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복수의 종목에서 우리 선수의 경기가 동시에 펼쳐지면 시청자들은 SBS가 선택한 경기를 봤어야했다.